

# 노형욱 장관, “경각심 갖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대응”

## - 6일 광명역 찾아 해외입국자 수송 현장 점검·모든 역량 집중 당부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6일 광명역을 방문하여 해외입국자 수송현황 및 코로나-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노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인천공항-광명역 간 전용버스 수송, KTX 전용 칸 운영, 역사 방역현황 등 해외입국자 수송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보고받았다.
-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“최근 국내 코로나-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,
  -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역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.”라고 강조했다.
- 이어서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하차장, 매표소 및 대기 장소, KTX 전용칸 탑승 현장 등 이동 경로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 뒤,
  -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을 감안하여 입국자 전용 KTX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, 승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2021. 12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